

소설가 '이명한', 삶과 문학적 생애 조망



한국문단 최고령 현역 작가
굴곡진 역사 속 저항의지
5권 51편에 담아내

광주의 어른이자 한국문단의 최고령 현역 작가 이명한(92) 선생의 등단 반세기를 기념한 중단편전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이명한 작가의 삶과 그 문학적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총 5권의 전집으로 문학을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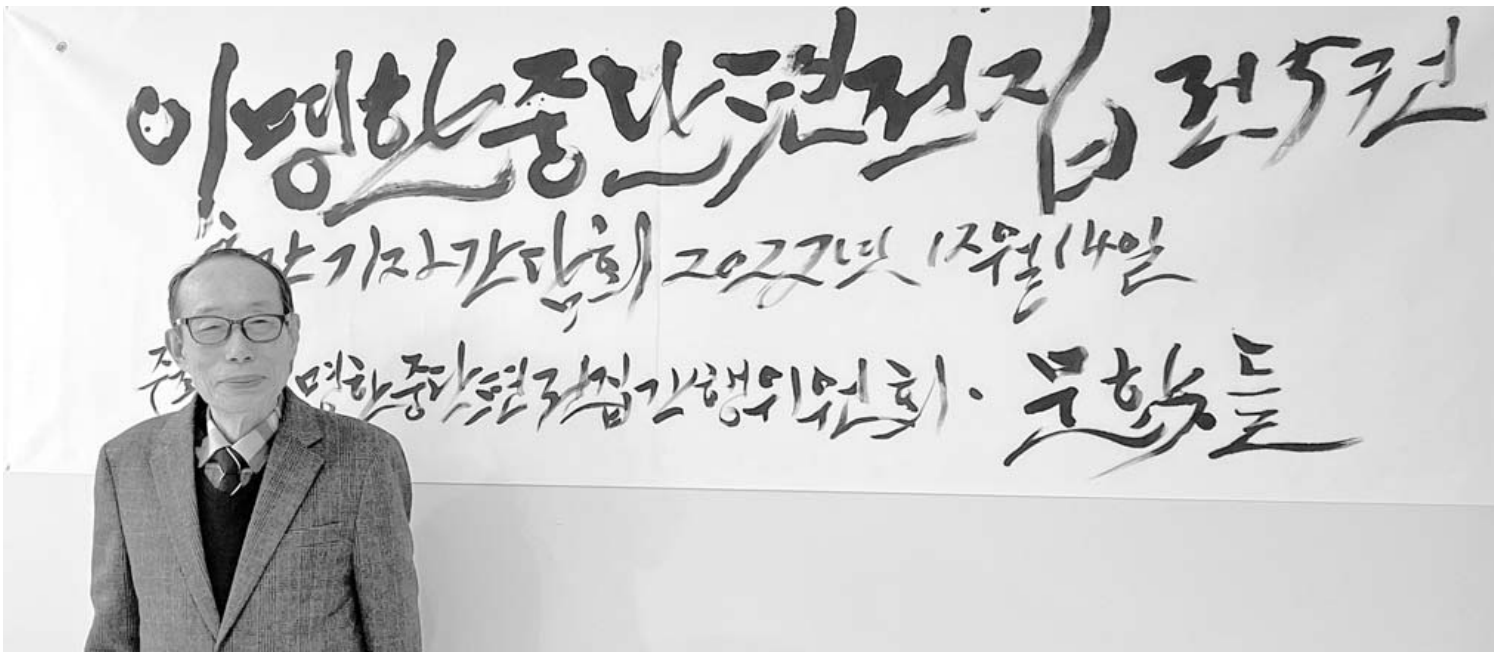
그는 식민지와 해방, 분단과 폭압의 한 시절을 거쳐 오는 동안 일국의 문인으로서 지조를 잃지 않으며 문학 작품을 통해 일관되게 역사 의식과 시대정신을 추구해왔다.

1931년 나주에서 출생한 이명한 작가는 분단체제 작가로서의 문학적 실천과 사회적 행동을 병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후생들에게 큰 존경을 받아왔다. 한승원·주동후·김신은·이계홍 작가 등과 함께 1972년부터 광주에서 '소설문학동인회'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1973년 3월 동인지 '소설문학' 제1집에 첫 소설 '효녀무'를 발표했다. 그리고 1975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한국문단에 처음 얼굴을 선보였다.

이번 전집이 특별한 이유는 광주·전남 지역 작가를 포함, 각계 인사 36명으로 구성된 이명한 중단편전집 간행위원회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한승원 소설가·임현영 문학평론가·문순태 소설가·이재백 소설가·김준태 시인·김희수 시인·김정길 통일운동가·김수복 통일운동가·윤준식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고문을 맡았으며, 이승철·송광룡 시인과

광주·전남 지역 작가 포함 각계 인사 36명 참여...등단 50년 기념 중단편 전집 발간



정강철·범현이 소설가, 이명한 선생의 아들인 이철영 답사여행작가가 실무위원으로 함께했다. 간행위원은 임철우·채희운·박호재·박해강·전용호·조성현·김경희 소설가, 나종영·백수인·고재중·조진태·김경운·박관서·김완·이지담·김호균·조성국 시인, 맹문재 문학평론가·윤만식 문화운동가·김경주 화가·박종화 민중음악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작품을 모으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자료를 검색해 일일이 원본을 찾기도 했다. 이렇게 작가의 등단작부터 최신작까지 총 51편의 중단편 소설이 발표순으로 한데 엮였다.

아울러 전집에는 이명한 문학세계 전반을 조망하는 김영삼 평론가의 신작 해설 '시간의 지층을 넘어'와 함께 장일구 평론가(전남대 국문과 교수)의 해설 '삶의 이야기, 그 서사적 자유'도 함께 실려 있다.

1권 '효녀무'에서는 1975년 '월간문학' 등단 무렵부터 1979년 10·26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발표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의 충돌, 애육적 세대풍경과 물가치한 현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류인생들의 애환과 생존의지를 담아낸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2권 '진흔제'와 3권 '기다리는 사람들'은 1980년 5·18민중항쟁과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겪은 이명한 작가가 민주화운동에 투신하던 시기 창작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작가의 유년 시절 생체험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의 피어린 역사, 8·15해방과 한국전쟁 시기의 이념적 갈등, 광주항쟁의 진실 찾기와 군사문화에 대한 폭로 등 역사가 만든 비극, 그 뒤안길에서 생존해야 하는 사람들의 뼈아픈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 역사와 권력의 '폭력'에 대한 이명한 작가의 '저항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4권 '은혜로운 유산'과 5권 '겨울나기'에는 '반복된 역사의 비극 방지'라는 작가의 철학과 고향으로의 회귀정신, 원초적 생명력을 담아낸 작품들이 담겨있다. 또한 5권에 덧붙인 이명한 작가의 이력과 문학적 생애에 대한 탐사는 광주전남문학사의 소중한 일면을 보여준다.

이명한 작가는 "중단편전집을 내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말렸을텐데 이미 출간 작업이 한



이명한 중단편전집 간행위원회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한 중단편전집 출판을 알렸다. 사진은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소설가 이명한 선생(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왼쪽부터) 김호균 시인, 채희운 소설가, 이철영 여행작가, 범현이 소설가, 이승철 시인.

참 진행된 뒤였다"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동안 노고한 흔적이란 남길 수 있게 됐다. 부족한 작품들이지만, 책으로 발간될 수 있게 도움을 준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명한 중단편전집 간행위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맞물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우리에게 큰 흡입력을 가져다준다"며 "우리 시대 원로로서 한국문학의 뿌리와 숲을 풍성하게 만든 이명학 문학에 큰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현직 초등학교 교장 김희란 시인 시집 '억지로 그리지 않아도' 출간

현직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김희란(사진) 시인이 시집 '억지로 그리지 않아도'를 출간했다.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됐다.

1장 '뒤척이는 시간'에서는 흐르는 겨울에 앉아 봄을 기다리는 자연의 풍경 등을 담았다. '반쪽을 빚다'를 주제로 하는 2장에서는 '무현금으

로도 꿈틀대는 윤슬처럼/뽀족한 갈증/쉽 없이 매만진다'는 시상으로 부시들을 언급하는 작품 등을 선보인다.

3장 '귀기울이면'에서 화자는 '긴 여백 위로 떠도는 열정의 길이/울림으로 전해지는 무수한 노래'라는 시상을 갖고 '나를 만나리 달리는' 기차에 대해 이



야기하는 등 파스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한편, 김희란 시인은 월간 시사문단 시 부문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시낭송가 인증, 시낭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한실문예창작 동그런문학회장, 광주 문인협회 회원, 광주시인협회 회원, 세계문화예술연합회 부회장, 한국문화예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문화통plus 겨울호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겨울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 전라도문화수수께끼에서는 '무안 홀통'의 유래를 풀어냈으며, 동북이 동북오씨들의 800년 세거지가 된 배경과 임항조 문헌공이 국태민안과 만대번영을 빌었다는 48석등에 얹힌 이야기를 다뤘다. 또한 배고픈 시절 '배갱이죽'이라 불렀던 구황식품 고구마 이야기를 비롯해 미술사가 이연식 박사의 '귀스타프 모로의 환영'을 실었다. 아울러 인기 칼럼니스트 조용현 교수의 '소태산의 민어파시' 사연과 광주에 라인댄스를 보급하고 있는 무용가 나은영 씨 인터뷰를 담았다. 전라도 밥상코너에서는 겨울철 별미 주암의 '참게 매운탕'을, 문화뉴스 코너에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취안저우-요코하마 미술교류전 '심상'을 소개한다.

/광주문화발전소



▲죽음의 대천사 생쥐스트=랄프 코른골트 지음, 정진국 옮김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류의 투쟁과 비극을 생쥐스트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들려주는 보기 드문 책이다. 프랑스어판으로 먼저 출간된 뒤 유럽 각국에 번역본이 나왔다. 생쥐스트는 혁명의 절정이자 고비였던 1792년부터 1794년까지 단 3년간 공화주의 이상사회를 꿈꾸며 싸우던 프랑스를 구하려고 했지만, 동지들의 배신에 희생됐다. 프랑스대혁명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를 잃는 많은 시민이었지만, 생쥐스트는 마치 더블캐스팅으로 등장하는 주연처럼 매우 특이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정의에 굶주린 사람들 대신 정의의 법을 세우려고 칼을 휘둘렀다.

/다큐멘토·1만7천원



▲기웃기웃 보름달=박상희 글, 공공이 그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시집 그림책 '기웃기웃 보름달'이 출간됐다. 환경을 도구로 활용한 대가가 인간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시집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시인은 인간이 더 이상 자연과 불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이 그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시로써 호소하고 있다.

/가문비어린이·1만1천원



▲맛의 탐닉=한국지역출판연대 저자

책쟁이들이 뽑은 지역의 맛은 어떨까. '맛의 탐닉'은 지역의 맛과 맛이 지닌 이야기를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대한민국

전국팔도에 따라 총 13개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도, 전라도 등 남부권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산해진미와 제주도 특유의 소박한 식당과 먹거리가 주는 맛과 멋을 소개하고 있다. 경상권에서는 부산의 특색 있는 요리들과 동해와 맛달아 바다 내음이 가득 담긴 해산물 요리들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지역의 맛을 아낌없이 소개하고 있다.

/상상창조소품·1만5천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